

3분기 잘 달린 K-배터리... 4분기, 북미 EV시장 선점 박차

K-배터리 3사 실적·전망

삼성SDI “건조한 수요 성장세”
영업익 5659억, 매출 5.4억 기록

LG에너지솔루션 매출액 7.6조
전년대비 90% 상승 ‘흑자전환’

SK온 매출 2.2조에 영업손실
상각전 영업익 첫 흑자전환 달성



삼성SDI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팩 공장.



삼성SDI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들어설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의 배터리 3공장 조감도.

올해 3분기 국내 배터리 업계의 성적표가 모두 공개됐다.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모두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며 ‘K-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은 한 해를 준비하는 각오들이 남다른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경기침체’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의미한 결과 거둔 배터리 3사의 3분기

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두 회사 모두 전기차의 수요 증가가 매출확대의 열쇠였다고 언급했다.

삼성SDI는 분기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5659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5조 3680억원으로 사상 첫 5조원대를 매출액을 달성했다. 손미카엘 삼성SDI 중대형전지 전략마케팅 부사장은 컨퍼런

스에서 “전적으로 인한 주요 부품 공급망 이슈에도 전기차(EV) 수요는 건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당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리미엄급 2위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당사 역시 전5(Gen.5)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EV 전지 매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도 매출액은 7조6482억원, 영업이익은 5219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89.9% 상승했다. 특히 영업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해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선 2분기 주요 원자재가 상승으로 주춤했지만, 3분기부터는 인상된 원자재가를 판가에 적용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환차익이 발생하자 분기 최대 매출을 올리게 됐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LG에너지솔루션은 북

미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기간 지속해왔다”며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최소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9월 말 기준 수주잔고가 약 370조원 규모이며 이 중 70%가 북미 지역 수주라 밝힌 바 있어 향후 배터리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온은 두 회사와 달리 매출액 2조 1942억원, 영업손실 134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지속했다. 다만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분기 첫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매출은 전 분기보다 9062억원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도 전 분기 3266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SK온은 빠르게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배터리 생산능력(케파) 확장 계획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영업손실을 막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규모 해외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재무부장은 “미국 2공장은 내년 1분기 양산 예정이고 추가 자본적지출(CAPEX·캐펙스) 수요는 제한적”이라며 “형가리 3공장에 필요한 재원도 대부분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3사...4분기 달릴 일만 남았다

4분기는 ‘K-배터리’에 힘을 실어줄 대외적 상황이 존재해 배터리 3사 모두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4분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이슈 완화와 계절적 성수기로 접어들어 EV용 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민관 협의 플랫폼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가 발족하면서 핵심

광물 확보에 주력하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건으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라는 요구를 담은 법률이다. 핵심 광물에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용 비율이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점차 높아져 배터리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됐다.

그럼에도 배터리 3사 모두 IRA를 ‘기회’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공급처 다변화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북미 EV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삼성SDI 측은 “IRA은 친환경 정책의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지 사업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IRA 시행을 대비해 핵심 소재 북미 현지화는 물론 니켈·리튬·코발트 등 메탈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 내에 있는 채굴 및 정·제련 업체를 활용해 국내 생산 요구에 대응해 나간다. SK온은 “현지 공장 운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케파 증설도 추진하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자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온, 칠레 SQM과 리튬 장기구매 계약

5년간 수산화리튬 5.7만톤 공급
전기차 120만대 배터리생산 규모
물량확대 가능... 공급망 강화 기대

SK온이 호주 리튬 생산기업들에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리튬기업과 손을 잡고 공급망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SK온의 북미시장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주목된다.

6일 SK온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칠레 SQM과 리튬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진교원 SK온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카를로스 디아즈(Carlos Diaz) SQM 리튬 총괄사장 등이 참석했다.

SK온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SQM으로부터 고품질 수산화리튬 총 5만 7000톤을 공급받는다. 이는 전기차 약 12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양측은 또한 향후 리튬 추가공급 및 생산시설 투자 검토, 폐배



카를로스 디아즈 SQM 리튬 총괄사장(왼쪽)과 진교원 SK온 최고운영책임자(오른쪽)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리튬 구매계약을 맺고 있다. /SK온

터리 재활용 등 중장기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디아즈 사장 일행은 계약에 앞서 이날 오전 중남 서산 SK온 배터리 공장을 방문, 최첨단 생산시스템을 둘러봤다.

칠레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칠레 기업인 SQM은

로부터 리튬을 공급받을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

1968년 설립된 SQM은 칠레 유일의 수산화리튬 생산기업이다. 현재 칠레 산티아고 증시 및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SQM은 지난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의 리튬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왔으며, 향후 공급물량 확대도 가능한 기업이라 SK온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QM은 리튬 생산시 탄소·물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SQM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리튬 채굴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책임 있는 광업 보증을 위한 이니셔티브(IRMA·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에 가입했다. IRMA 표준에 따라 아타카마 염호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인권, 지역 사회 참여, 오염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갤럭시 워치5 프로, 메탈스트랩 2종 출시

삼성전자, 아날로그 감성 담아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5 프로’와 ‘갤럭시 워치5’ 전용 신규 메탈 스트랩 2종을 7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6일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워치5 프로’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링크브레이슬릿(Link Bracelet)’ 스트랩은 가볍고 튼튼한 티타늄 재질로 아날로그 시계의 감성을 담았다”며 “사용자는 스트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디자인의 워치를 착용한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워치5 프로’의 기본 스트랩인 D버클 스포츠 밴드가 아늑도어 활동



에 보다 잘 어울린다면, 링크브레이슬릿 스트랩은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워치 느낌을 자아내며 수트와도 세련된 매칭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워치 본체와 스트랩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버튼형 방식을 채용했으며, 스트랩 길이 또한 버튼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버클은 마그네틱 체결 방식을 적용해 편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사용성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삼성전자 “TV 구입시 ‘엑스박스’ 드려요”

삼성디지털프라자 직영점 프로모션

삼성전자 TV를 구매하면 엑스박스도 함께 간다.

삼성전자는 다음달까지 ‘엑스박스 게이밍 패키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닷컴에서는 7일부터, 삼성디지털프라자 직영점에서는 다음 달부터다.

대상 제품은 게이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삼성닷컴에서 판매하는 KQ43QNB90·KQ50QNB90와 삼성 디지털프라자 직영점에서 판매하는 KQ85QNB90이다.

삼성전자는 행사를 통해 제품 구매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3개월 무료 이용권과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제공한다. 콘솔 게임을 구매하지 않아도 엑스박스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 TV는 게이밍 허브를 통해 엑스박스 게임 패스 뿐 아니라 엔비디아 지포스나우 등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콘솔과 같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유튜브와 트위치 등으로 게임과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 캐스퍼 2200대 120만원 할인

이달말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연계해 캐스퍼(캐스퍼 밴 포함) 약 2200대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최대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2016

년부터 7년 연속 참여하고 있다. 캐스퍼는 지난해 9월 현대차가 첫 선을 보인 엔트리 SUV다. 출시 이후 지난 10월까지 4만9000대 이상 판매되며 국내 경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캐스퍼의 신규 트림 ‘디에센셜’이 추가되었으며, 출시 이후 2주 만에 계약 대수 1500대를 돌파하며 고객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